

사냥 당하는 호랑이... 'V13' 위해선 각성 필수

KIA 2024 우승 시즌 돌아보니 부상 이어져도 꾸준한 경기력 올해 불안한 불펜 타역전 허용 소수만 타격감 유지...타율 급락

KBO리그 2025시즌이 개막 2주차로 들어선 가운데 디펜딩 챔피언 KIA타이거즈의 기세가 바닥을 치고 있다.

지난 2024시즌 초반 9경기서 7승 2패를 기록했던 것과 달리 2일 오후 기준 9번의 경기 중 3승 6패를 기록 중이다. 지난 시즌 '철옹성'을 자랑하던 불펜의 모습도 더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면서 KIA가 2009년부터 우승만 하면 겪어온 부진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KIA는 1997년 우승→1998년에 5위, 2009년 우승→2010년 5위, 2017년 우승→2018년 5위를 기록한 바 있다. 주축선수들의 줄부상과 함께 불펜, 타선 어느 하나 지난 시즌의 위엄을 보여주지 못한 KIA가 'V13'을 목표로 하려면 하루빨리 제 컨디션을 회복하고 각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시즌 부상 많았지만 '압도'**
이범호 KIA 감독은 지난 1일 "시즌 초반 팀의 주축 선수들의 부상으로 경기 흐름이 예상과 다르게 가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도영과 박찬호 등의 부상이 대체 선수나 투수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되는 등 상황이 꼬여버렸다는 것이다.



이범호 KIA타이거즈 감독이 3일 광주-기아챔피언스 필드에서 훈련을 지켜보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하지만 KIA가 우승했던 지난 시즌도 결코 순탄하진 않았다.

선발투수 중에서는 양현종을 제외한 윌 크로우와 네일, 이의리, 윤영철이 부상으로 이탈했다. 나성범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4월 말에나 팀에 합류했고 최형우와 이우성 등 주전 타자들의 부상도 잦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IA의 지난 시즌은 황동하와 김도현이 선발진 공백을 잘 메꿨고 불펜진은 철벽 투구를 펼쳤다. 여기에 이범호 감독의 용병술과 전략이 더해

져 많은 승수를 챙겼다.

●**지키랬더니 불 지르는 불펜진**

지난 시즌 이 감독의 전략은 명료했다. 6-30으로 지더라도 버틸 경기는 확실히 버리고 잡을 수 있는 경기를 확실히 잡아내는 전략이다.

선발진이 부상으로 붕괴한 가운데 불펜의 혹사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다만 이 전략이 통하기 위해서는 이 감독이 원할 때 흔들리지 않고 '지키는 야구'를 해줄 수 있는 불펜을 전제로 한다. 지난해 KIA 불

펜의 과도규는 71경기에서 평균자책 3.56으로 대활약을 펼쳤고 전상현은 66경기 평균자책 4.09, 정해영은 53경기 평균자책 2.49, 임기영은 37경기 평균자책 6.31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엔 KIA 불펜진의 부진이 심각하다.

과도규가 5경기 평균자책 18.00, 전상현이 4경기 평균자책 15.00, 정해영이 3경기 평균자책 9.00, 임기영이 2경기 평균자책 27.00으로 처참한 수준이다. 불펜

진의 난조로 KIA는 이번 시즌 5경기에서 역전패를 당했다.

●**팀 타율 1위→5위 곤두박질**

지난해 KIA 우승의 원동력은 강한 타선이었다. 장타율(0.459), 타점(812개), 출루율(0.369) 뿐 아니라 팀 평균 타율(0.301)도 리그 1위를 기록했다.

나성범(0.291)·최형우(0.280) 등 중심타자 뿐 아니라 김도영(0.347)·한준수(0.307)·변우혁(0.304)·홍종표(0.295)·이우성(0.288) 등 너 나 할 것 없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번 시즌도 김선빈이 0.423, 김규성 0.391, 나성범 0.290으로 준수한 타율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위즈덤과 나성범, 최형우는 각각 9경기에서 5홈런, 3홈런, 2홈런을 기록했다. 하지만 팀 평균 타율로 보면 리그 5위다.

지난해와 달리 한준수의 타율은 0.190, 변우혁 0.235, 이우성 0.226, 홍종표 0.091에 머물러 있는 등 타선이 전체적으로 균형 잡히지 않은 모습이다.

이범호 KIA 감독은 "가진 전력을 다 사용하지 못한 채로 경기를 하다 보니 생각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고, 선수들이 돌아오는 시점부터 전력을 어떻게 구상할지도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은 위낙 위급한 상황이고 투수들도 제 컨디션이 아닌 것 같다. 앞으로 130여경기가 남았는데 언제든 지치고 올라갈 힘은 있다고 생각하니까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ilbo.com

광주FC, K리그1 9라운드 서울전 일정 변경

20일 오후 2시→19일 오후 7시로

K리그1 광주FC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8강 진출로 광주와 FC서울의 9라운드 일정이 변경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1 9라운드 광주FC와 FC서울의 경기가 기존 20일 오후 2시에서 19일 오후 7시로 변경된다고 3일 밝혔다. 경기 장소는 기존과 동일한 서울월드컵경기장이다.

경기 일정 변경 이유는 ACLE 8강에 진출한 광주가 20일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광주는 지난달 12일 광주월드컵경기장

에서 열린 비셀 고베(일본)와의 ACLE 16강 2차전에서 연장전 승부 끝에 3-0으로 승리해 1, 2차전 합계 3-2로 역전에 성공하며 8강에 올랐다. 이로써 광주는 K리그1 시도민 구단 최초로 AFC 주관 대회 8강이라는 새 역사를 썼다.

K리그에서 유일하게 ACLE 8강에 오른 광주는 오는 25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펼쳐지는 파이널 스테이지에 출전한다. 광주는 오는 26일 오전 1시 30분 알힐랄(사우디아라비아)과 준결승 진출을 다툰다.

광주가 알힐랄을 이길 경우 알 아흘리(사우디아라비아)-부리람 유나이티드(태국) 승자와 오는 30일 결승행 진출권을 놓고 다툰다.

민현기 기자

광주시청 장애인사격팀, 금빛 탄환 쏘다

화성특례시장배 금 3·은 1·동 3개

광주시청 장애인사격팀이 올해 첫 국내 대회인 '제2회 화성특례시장배 전국장애인사격대회'에서 금빛 탄환을 발사하며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김근수 감독이 이끄는 광주시청 장애인사격팀은 3일 경기도사격테마파크에서 끝난 제2회 화성특례시장배 겸 2026 상시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단체전 3관왕(R4-공기소총10m 입사·R5-공기소총10m 복사·R9-화약소총 50m 복사) 포함 금 3개와 은 1개, 동 3개를 획득했다.

지난 1일 공기소총 입사(R4) 단체전에서는 임주현(633.7점), 박동안(630.9점), 박승우(629.8점) 선수가 합계 1894.4점으로 경기도(1889.4점)와 대전(1879.3점)을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어진 R4 개인전에서는 임주현 선수가 동메달을 추가했다.

2일 공기소총 복사(R5) 단체전에서는 박승우(637.9점), 임주현(634.7점), 박동안(634.7점)이 합계 1907.3점으로 경기도(1900.9점), 대전(1899.3점)을 크게 앞서며 금메달을 추가했다. 이어진 R5 개인전에서는 임주현이 은메달, 박승우가 동메달을 차지했다.

3일 화약소총 복사(R9) 단체전에서도 박승우(622.4점), 박동안(615.5점), 임주현(612.3점)이 합계 1850.2점으로 경기도(1846.7), 대전(1829.6)을 제치고 단체전 3관왕을 완성했다. R9 개인전에서는 박승우가 동메달을 추가했다.

최동한 기자



광주시청 장애인사격팀이 3일 경기도사격테마파크에서 끝난 제2회 화성특례시장배 겸 2026 상시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단체전 3관왕(R4-공기소총10m 입사·R5-공기소총10m 복사·R9-화약소총 50m 복사) 포함 금 3개와 은 1개, 동 3개를 획득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광주시청 장애인사격팀은 지난해 단체전(R4, R5, R9)이 운영된 5개 대회(연맹 회장기, 국가대표 선발전, 직지배, 화성시장배,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15개 중 금 14개, 은 1개를 획득한 데 이어 올해 첫 대회에서도 단체전 3관왕을 거머쥐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장애인사격 간판 팀임을 알렸다.

특히 지난해 10월 경남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공기소총 입사(R4) 단체전에서 1902.2점으로 비공인 세계신기록을 기록한 바 있다.

김근수 광주시청 사격감독은 "동계 시즌 선수들과 함께 소통하며 훈련에 매진

한 결과가 올해 첫 대회부터 나온 것 같아 기쁘다"며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박승우, 박동안, 임주현 선수와 원팀 정신으로 전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2026 장애인사격 상시 국가대표는 이번 화성특례시장배를 포함한 7개 대회서 상위 6개 대회 성적을 합산해 대한장애인사격연맹에서 종목별 1명씩 선발한다.

광주시청 박승우는 2024년 6개 대회 R9(화약소총 복사) 종목 합산 1위를 차지하며 2025년 상시 국가대표로 선발돼 활동 중이다.

최동한 기자

발달장애인들의 도전... 내일 엠마우스 슈퍼 풋살대회

첨단체육공원 축구장서 광주 지역 16개팀 참가

광주 발달장애인들의 화합과 도전의 장이 될 풋살대회가 열린다.

제23회 엠마우스 슈퍼 풋살대회가 오는 5일 오전 9시부터 광주 첨단체육공원 축구장에서 개최된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와 사회복지법인 무지개공동체가 공동 주최하고, 엠마우스 복지관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스포츠를 통한 신체 능력 향상과 사회성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패자 없는 경기'라는 취지 아래 모든 참가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된다.

대회에는 광주지역 발달장애인 16개팀이 참여해 조별 리그를 펼친다.

대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발달장애인들에게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길 바란다"며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축제가 되고 발달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동한 기자